

『兵學通』의 전술과 華城幸行 「班次圖」의 武藝 侍衛軍 배치 관계성 연구

최형국(한국전통무예연구소 소장)*

국문초록

본 연구는 정조대 편찬된 진법서인 『병학통(兵學通)』의 전술 내용을 바탕으로 화성행행(華城幸行) 「반차도(班次圖)」의 실제 시위군 행렬의 무기활용 및 무예, 전투전술전개, 깃발이나 악기를 이용한 전술신호 전개 등 군사사적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도성의 궁궐인 창덕궁을 시작으로 수원 화성(華城)에 도착할 때까지 실제 국왕의 어가 행렬이 군사적 위협에 봉착했을 때, 가장 효율적으로 국왕을 보호하고 대오를 안정적으로 다음 기착지까지 이동시키는 것이 시위군병의 기본적인 임무였다. 따라서 「반차도」의 행렬 배치는 단순한 의례행렬의 넘어 실제 국왕의 보호하는 군사 전술적 배치가 이뤄졌다. 특히 정조는 자신의 호위를 더 두텁게 하기 위하여 5열의 환도수, 조총수, 장창수와 능장수 등을 배치하였고, ‘무예청작문(武藝廳作門)’이라 하여 마치 군영의 출입구로 엄히 통제하는 방식을 취했다. 또한 정조가 탄 어승마 부분의 위내(衛內)는 선기대(善騎隊)의 기병병력을 통해 기습 공격시 빠르게 대처하는 기동군으로 편성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병학통』에서 행군 시 적의 기습을 당할 때 가장 빠르게 주장(主將)을 보호하는 전술전개인데, 이것이 「반차도」 상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결론적으로 정조의 을묘년 반차도상의 국왕의 행렬은 단순한 의장행렬을 넘어 군사 전술적인 의미가 충분히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정조, 화성(華城), 반차도, 시위군, 『병학통』

* bluekb@hanmail.net

I. 서론

을묘년(乙卯年), 1795년 윤 2월 9일, 국왕이 도성을 비웠다. 대규모 정조의 능행차가 창덕궁을 시작하여 한강의 배다리를 건너 수원 화성을 향해 출발하였다. 이후 조선후기 최대의 능행길이라 평가받는 정조의 ‘을묘년 수원화성행차’가 7박 8일간 진행되었다. 그 행차는 능참배라는 단순한 효(孝)의 행위를 넘어, 지극히 정치적인 움직임이기도 했다. 그것은 오감을 모두 자극하여 국왕과 왕실의 존엄성을 대내외에 알리는 정치의식인 것이었다(최형국, 2019).

조선시대 국왕이 궁궐 밖으로 행차하는 일은 그 자체로 정치적이며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다. 당시 일반 백성들이 국왕의 모습을 보는 것 혹은 그 행렬의 모습을 보는 것 자체가 일생에 단 한번 있을까 말까 할 정도로 보기 드문 일이었기에 국왕의 성외(城外)행차는 정치성을 기본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었다.¹⁾

정조는 도성에 유도대신 김희(金熹)와 수궁대장 조종현(趙宗鉉), 유도대장 김지묵(金持默) 등을 남겨두고 한강의 배다리를 건너 수원을 향해 새롭게 조성한 신작로를 따라 1,854명의 대규모 인원과 700필이 넘는 전투마를 동원하며 국왕의 군사적 힘을 시각적으로 보여줬다.²⁾ 거기에 왕실에서만 사용하는 향기롭고도 신비한 침향을 피워 올리며 백성들의 후각을 자극하고, 각종 군사용 악기를 맨 취타수들은 장엄한 행진 음악을 연주하며 모든 이들의 귀를

1) 당시 백성들에게 국왕의 행렬은 소위 말하는 ‘觀光’ 그 자체였다. 觀光의 어원은 『周易』의 “觀國之光”에서 유래한다. 말 그대로 국가의 빛남 즉 나라의 문화가 밝게 빛나는 가를 살피는 것이다.(『周易』 上經, 坤下 巽上, 觀.)

2) 정조의 수원행차에 앞서 사전에 보고한 啓目에는 국왕의 수레를 수행할 將官, 將校, 軍兵의 실제 숫자를 1,854명이며, 각자가 顯隆園을 왕복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은 8일이며 모두 20끼니의 식량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의례 반차도 상의 그림에는 1779명에 말이 779필이 보인다. 이는 반차도 상에서는 군병의 숫자를 축약하여 표현했던 것과 연로한 신하나 행정 혹은 군무상 미리 수원화성에 도착한 인원이 있었기에 차이가 나는 것이다.(『園幸乙卯整理儀軌』 卷3, 乙卯 2月 24日.)

사로잡았다(김지영, 2005). 국왕의 행렬을 맞이하러 온 관료들과 백성들의 눈은 물론이고 코와 귀까지 백성들의 오감을 자극하는 행렬이었다.

정조의 을묘년 화성행차시 펼쳐진 일들을 행사 순으로 살펴보면, 윤2월 11일에 진행된 수원 향교의 대성전 참배 및 낙남헌 문무과시험을 시작으로 다음날에는 오전에 현릉원 참배가 진행되었고, 오후에는 서장대에 올라 이튿날 새벽까지 군사훈련인 성조와 야조를 참관하였다. 그리고 13일에는 가장 핵심적인 행사인 봉수당 진찬연이 펼쳐졌고, 14일에는 신평루 앞에서 쌀과 죽을 나눠주는 행사와 함께 낙남헌에서 양로연이 거행되었다. 그날 오후에는 방화수류정에 행차했다가 저녁에는 득중정에서 활쏘기와 함께 매화(埋火)를 터뜨리며 불꽃놀이를 하였다. 그리고 윤2월 15일에 정조는 서울로 가는 귀로에 올랐다. 그날 시행행궁에서 숙박을 한 후 다음날인 16일에는 노량행궁(용양봉저정)에서 점심을 먹고 창덕궁까지 행차를 이어갔다(한영우, 2013). 이 모든 과정이 백성과 함께 진행되었고, 백성들의 입을 통해 전국으로 퍼져나갔다.

이처럼 그 해, 을묘년에 펼쳐진 정조의 행차는 단순한 국왕의 거동을 넘어 조선의 모든 관료들과 백성들에게 국왕의 존엄을 완벽하게 각인시키기 충분한 정치적인 의식이었다. 그 행차의 모든 것이 『원행음묘정리의궤(園幸乙卯整理儀軌)』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그날 행차에 참여한 모든 인원의 명부는 물론이고 각각의 단일 행사에 소요되는 경비까지 소상히 밝혀 후대에 이를 참고하도록 한 것이다.

이런 이유로 국왕의 어가 행렬은 ‘노부(鹵簿)’라고 하는 규격화된 의장을 바탕으로 구성되었다. 그중 화성행행 반차도의 경우는 아버지인 사도세자의 능(현릉원)에 참배하러 가는 경우이기에 소가노부인 「배능의(拜陵儀)」에 속한다(백영자, 1994). 그러나 단순히 정치적이고 상징적인 모습에 그치지 않고, 만약에 발생할 수도 있는 군사적 사태에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호위(扈衛) 혹은 시위(侍衛)의 형태가 국왕의 행렬의 기본적인 요소였다. 또한 정조가 수원 화성에 도착한 후 군사적으로 가장 의미 있게 진행한 것이 화성성곽에서 펼쳐진 조선시대 군사훈련인 주조(晝操)와 야조(夜操)였다(최형국, 2015). 당시 동원된 모든 군사들을 전체 5.6km나 되는 화성의 성가퀴에 둘러

놓고 대규모 군사훈련을 진행한 것이다.

지금까지 『원행음묘정리의궤』에 대한 연구는 의궤의 성격에 대한 연구뿐만 아니라 그림과 글자체는 물론이고 당시 먹었던 음식에 관한 연구 및 시각 정보를 활용한 UV콘텐츠 연구까지 상당히 다양한 영역에서 연구되어 왔다.³⁾ 또한 본 논고의 핵심 주제이기도 한 「반차도」상의 군병배치 및 군사용 깃발에 관한 연구도 일정부분 진행되어 왔다(노영구 외, 2015).

그러나 지금까지 연구에서는 상징성 혹은 정치적 성격 위주로 반차도 행렬에 대한 분석이 주를 이뤘기에 실제 반차도를 보는 일반 대중이나 역사학을 제외한 체육이나 예술 등 타 영역의 연구자들에게는 군사적 실체를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조대 편찬된 진법서인 『병학통』을 바탕으로 실제 행렬의 무기 활용, 전투전술전개, 깃발이나 악기를 이용한 전술신호 전개 등 군사사적 관점에서 「반차도」의 내용과 의미를 세밀하게 분석하고자 한다. 도성의 궁궐인 창덕궁을 시작으로 수원 화성에 도착할 때까지 실제 국왕의 어가 행렬이 군사적 위협에 봉착했을 때, 가장 효율적으로 국왕을 보호하고 대오를 안정적으로 다음 기착지까지 이동시키는 것이 시위군병의 기본적인 임무였다.

「반차도」 상에 등장하는 군사용 깃발이나 악기를 비롯하여 군병들이 소지한 무기는 물론이고 어가(御駕)를 중심으로 배치된 군병의 열진(列陣)형태는 당대의 전술형태와 군사무예의 활용 방식을 가장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그림이다.⁴⁾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 전통시대 국왕의 호위전술이나 국왕주변 왕실 시위군의 무예를 연구함에 있어 기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3) 『원행음묘정리의궤』에 관한 연구 중 지난 2015년에 수원화성박물관에서 진행된 ‘정조대왕 을묘년 수원행차 220주년 기념 특별전’의 자료가 가장 상세하다.

4) 「반차도」에 수록된 그림 역시 상당부분 축약된 부분이 많지만, 실제 국왕이 탄 어가나 좌마 주변은 전술전개가 가능할 정도로 기본적인 시위구조를 보여준다. 따라서 이를 바탕으로 조선후기 국왕의 교외거동시 호위형태 및 활용 무예의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II. 『병학통』의 편찬 배경과 어가 행렬시 군사훈련의 변화

『병학통』은 1785년(정조 9)에 편찬된 병서로 2권 1책의 목판본(木版本)이다(노영구, 2016). 정조대 군사훈련의 변화를 가져온 병서 중 가장 먼저 편찬된 책이기도 하다. 도성을 방위하던 훈련도감·어영청·금위영의 삼군문(三軍門)과 국왕 직할 금군 역할을 수행했던 용호영 등 네 군영의 군사훈련을 통제하는 방법이 주요 내용이다(최형국, 2018). 『병학통』 편찬 책임자인 서명선(徐命善)은 발문에서 다음과 같이 병서를 편찬한 이유를 밝혔다.

우리 聖上 즉위 초에 훈련도감의 將臣에게 명해 軍營의 장교 중에서 군무에 익숙한 자와 함께 네 영의 場操程式을 모아 핵심을 세우고 주해를 나누되 서로 비교하여 헤아리고 陣圖를 붙여 편찬하여 하나의 통일된 체제를 만들었다.⁵⁾

위의 사료에서 볼 수 있듯이, 중앙 군영의 군사훈련 통일을 위해 이 병서를 편찬하였으며 이를 통해 전대의 훈련 방식을 벗어나 새로운 군사훈련 체제를 만든 것으로 볼 수 있다. 이후 『병학통』 편찬이 완료되자마자 모든 군영의 습진(習陣)을 비롯해 남한산성의 성조(城操)와 수군훈련 담당하던 통영의 수조(水操)까지도 바뀌었다. 『병학통』으로 중앙 군영과 지방의 중요 군사훈련의 개혁이 추진된 것이다(최형국, 2017).

『병학통』의 구성 형태를 보면, 먼저 맨 앞에 본받을 만한 사례를 범례로 적시하고, 바로 이어 목차를 배치했다. 권1은 대대위 군사를 조련하는 순서와 요령을 규정했는데, 훈련장의 형태에 따라 일반적인 군사 조련장에서의 훈련인 장조를 시작으로 구군진·팔진·륙화진 같은 여러 가지 대형 진법의 신호 체계와 행동 양식을 담았다. 그리고 야간 군사훈련인 야조와 성곽 방어 훈련

5) 聖上卽作初 命訓局將臣 與其營校之藝習 軍務者彙集 四營之場操程式 立綱分註 互較絜附以 陣圖編爲一通(『兵學通』 跋文.)

인 성조를 담아놓았다. 맨 뒤에는 바다에서 수군이 전선을 물고 훈련하는 수조 내용을 정리했다.

군사훈련은 각 군영에서 거의 동일하게 전개되기에, 핵심 군영인 훈련도감의 훈련 체계를 가장 먼저 설명하고, 다른 군영은 작은 글씨로 차이점을 추가했다. 예를 들면, 용호영은 모든 직할 군사가 기병으로만 구성되었기에 작은 글씨로 “용호영은 ‘걸음을 나아가고 멈추는 법을 익히며(보한진지-步閑進止)’ 라는 구절은 없애고, 대신 ‘말을 달리며 쫓아가기를 익히고 채찍과 고삐를 조심스럽게 익혀야 한다’ 라는 구절을 덧붙인다” 라고 써놓았다.

정조대에도 여전히 훈련도감은 중앙 군영의 핵심이었다. 범례의 3항을 보면, “네 군영 중에서 훈국이 표하의 친병이므로 절제와 균용이 다른 군영에 비해 중요하다.”⁶⁾라고 했을 정도다. 하지만 이후 정조가 장용영이라는 친위 군영을 설치하자 훈련도감을 비롯한 중앙 군영의 핵심 자원은 장용영에 이속되고, 장용영이 최고 군영으로 발돋움했다.

『병학통』 권2에는 다양한 군사들의 움직임을 그림으로 설명한 「진도」를 수록했다. 그 중 몇 가지를 살펴보면, 가장 처음에는 훈련의 시작을 보여주는 「입교장열성행오도(入教場列成行伍圖)」가 실려 있다. 군사훈련이 예정된 날 훈련장인 교장에 주장인 훈련대장이 입장하기 직전 훈련도감 군사들이 장대의 좌우로 도열해 있는 그림이다.

두 번째는 훈련대장이 교장에 입장할 때 함께 이동하는 수하 병력과 기수·악대 등 군사 신호용 악기와 깃발 부대의 배치 순서를 설명한 「대장청도도(大將淸道圖)」다. 그런데 좌위와 우위 군사들에 해당하는 문자는 바르게 썼는데 중간에 배치된 군사들에 해당하는 문자는 한정된 지면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거꾸로 뒤집어 글을 썼다. 이는 연결된 군사들의 위치를 쉽게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군사들이 뒤를 돌아보고 서는 것이 아니라 좌우 열에 연달아 서 있음을 묘사한 것이다.

6) 四營中訓局 卽輦下親軍也 節制軍容視他營較重(『兵學通』 凡例 3.)



그림 1. 『병학통』의 「대장청도」

다음은 「대장기고대상과열도(大將旗鼓臺上擺列圖)」라고 해서 교장의 중앙 통로인 마로(馬路)로 입장하던 주장과 각종 군사 깃발과 군악대와 아병·친병 등 주장 직속 군사들의 배치를 중심으로 다루었다. 이 그림을 보면 중앙을 중심으로 교장 좌우에 횡대로 도열한 군사들이 정면을 보지 않고 서로 마주보듯 서 있고, 대장의 좌우에 배치된 아병·친병은 군사들을 바라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후 주장의 명령에 따라 다양한 군사 배치가 이루어지고, 「개영행도(開營行圖)」라 해서 군영의 문을 열고 부대별로 순차적으로 행군하며 전투 훈련을 전개했다. 그 다음에는 중간 지휘관인 별장이나 천총에게 명령하는 그림을 담은 「별장천총일체발방도(別將千總一體發放圖)」, 바다에서 전선이 전투 대열을 짓는 「열선작전도(列船作戰圖)」를 실어놓았다. 삼도수군통제사 소속

수군 전선들이 적선 출현 경보를 받을 때는 세 층의 횡일자진 형태로 선단을 좌우로 펼쳐 적선의 침투를 막아내고 서로 대치하며 겹으로 공격하는 모습을 담은 「삼도주사첩진도」 등 육군·수군을 가리지 않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진형을 규정했다.

구체적인 전투 방식까지도 자세하게 그려 놓았는데, 대표적인 것이 조총 쏘는 법을 설명한 「조총운방도(鳥銃輪放圖)」다. 전투가 발생해 적군이 아군의 진형 100보 이내로 접근하면, 정렬한 조총병 1대가 지휘관의 명령에 따라 2명씩 5개 조로 나누어 앞뒤로 교체하며 연속적으로 사격하는 모습을 설명하였다.

기존의 진법서들과 『병학통』의 진법 상의 가장 큰 차이는, 기존 진법은 기병과 보병이 유기적으로 배치되어 함께 공방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병학통』에는 기병 단독 진법인 「좌우마병각방진(左右馬兵各方陣)」이나 「기사학익진도(騎士鶴翼陣圖)」 등 다양한 기병 위주의 진법이 추가된 부분이다.⁷⁾

기병 중심 진법을 추가되었다는 것은, 훈련 시에도 각 군영의 기병들이 단독으로 훈련했다는 뜻이다. 이는 정조가 기병 단독 전술 능력 배양에 상당히 신경을 썼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기병 강화는 당시 청나라와의 대립뿐만 아니라, 내란이 일어날 경우 빠르게 대처하기 위한 전략이었다. 『병학통』은 정조대 급박하게 변화하는 전장의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만든, 조선만의 전술 체계를 확립하고 통일시키기 위한 전술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정조는 즉위 초반에 응정(戎政) 즉, 군무에 관한 일을 개혁의 핵심으로 삼아 정사를 살폈기에 『병학통』의 편찬을 비롯한 일련의 군 통일화작업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최형국, 2012). 다음의 사료는 정조가 국가개혁의 핵심에 군사제도 및 훈련에 대한 통일화의 의미를 잘 보여주고 있다.

7) 다음은 『병학통』에 새롭게 추가된 기병중심의 진법내용이다. 左右馬兵各方陣, 左右馬兵合方陣, 馬兵六哨方營圖, 馬兵三哨方營圖, 以馬兵追擊馬兵, 以馬兵追擊步軍, 以步軍追擊馬兵, 馬兵蜂屯陣, 馬兵鶴翼陣, 馬兵蜂屯陣圖, 馬兵鶴翼陣圖, 騎士蜂屯陣圖, 騎士鶴翼陣圖 등 이다.

制勝方略을 두고 말하면, 장수는 범처럼 군센 위엄이 없고 군사는 烏合之卒이 되는 염려가 있었으며, 三軍을 五營에 나누어 소속하고서 이 오영이 각기 하나씩의 영을 專管하였으니, 군사가 家兵의 폐단이 多門하게 되는 염려에 가깝지 않겠느냐? 鍊習하는 방법을 두고 말한다면 『六韜三略』과 孫臏·吳起의 兵書는 高閣에 묶어 놓고서 場操와 水操의 격식은 문득 아이들의 놀이처럼 여기게 되었다. ... (중략)... 만에 하나라도 변방에 戰塵의 警報가 있게 되어 羽檄이 旁午하게 된다 면, 이와 같은 制置로는 비록 옛적의 名將에게 闔外의 임무를 맡게 한다 하더라도 계책과 方略을 펴가게 되지 못할 것이 뻔 하니, 참으로 이른바 ‘근본이 올바르지 못하면 말단에서는 구제해 갈 수 없는 것이다.’ 고 한 말과 같은 일이다.⁸⁾

위의 사료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정조는 군대를 단속하여 지휘 체제를 통일화하는 것이 국정 의 핵심과제임을 밝히고 있다. 그런데 이미 정조대 초반 당시 군지휘체계는 영조대부터 시도되었던 오위제(五衛制) 복구론과 병조판서의 대사마 지위부여 등 다양한 시도가 있었음에도 그 한계성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었다. 정조는 이러한 군문의 정치적 한계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실제 군사훈련 즉, 전투훈련의 변화라는 가장 낮은 단계의 통일화작업을 통해 국왕의 군사지휘권 회복이라는 큰 그림을 그리려고 하였다.

예를 들면 기존의 병조판서와 각 군영대장 간의 알력 혹은 애매한 상하관계로 발생한 문제를 조선 전기의 대열의 체계로 변화시키면서 중국에서는 국왕이 직접 군사들을 지휘하는 단계까지 발전시켰다.⁹⁾ 이를 위하여 『병학

8) 『正祖實錄』 卷5, 正祖 2年 6月 壬辰條.

9) 조선전기의 五衛편제상 군 지휘 체계는 국왕-병조판서-오위장-이하 부대장의 순서였지만, 조선후기에는 五軍營 체제로 군영이 변화하면서 병조판서는 명목 상으로는 오군영의 한 군영인 禁衛營의 수장으로 자리매김 되었다. 따라서 나머지 營의 大將, 특히 조선후기 가장 영향력이 컸던 군영인 訓練都監의 대장을 통제하지 못하는 한계가 따랐다. 정조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오위제를 수원 화성의 편제에 접목시켰으며, 국왕이 직접 군사를 지휘하는 방식으로 조선전기의 체제로 군사권을 통일화하려 하였다. 이를 위하여 조선전기의 군사훈련방식인 大閱儀의 방식을 새롭게 정립시켰다.

통』에서는 군사들을 직접 지휘할 수 있도록 「별진호령」을 군사들이 모두 숙지하기 쉽도록 효율화하여 보급시켰다.

이는 이미 숙종이나 영조대에 실제 열무의 과정에서 군사들을 빠르게 전투 기동시키려고 했지만, 조련절차가 너무나도 복잡하여 훈련 교장에서조차 지속적으로 오류가 발생한 것을 바로잡기 위함이었다. 특히 조선후기의 경우 오래 중 군례가 약화되며 국왕권 중 군사권과 관련된 의례가 축소되는 경향이 있었으나, 영조대 대사례의 복구를 비롯하여 정조대 대열의(大閱儀)의 재확립을 비롯한 국왕의 실질적인 군사지휘통제권이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병학통』에서 새롭게 효율화된 군사신호체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임란 이후 새롭게 전장에 화약무기가 급속도로 보급되면서 기존의 군사용 악기 신호는 그 한계가 명확해졌다(최형국, 2008). 따라서 모든 군사 신호의 시작에서는 신호포 혹은 신호/호포라고 하여 각 방위에 따라 혹은 신호명령의 순서에 따라 포성의 숫자로 군사명령의 시작을 알렸다. 다음으로는 해당 방위 부대의 깃발인 대기치를 움직여 군사기동을 시작하게 하였다. 예를 들면 동서남북에 해당하는 방위의 색(좌-청룡, 우-백호, 남-주작, 북-현무)을 대기치로 부대단위 지정하여 해당 부대가 신호를 받으면 인지했다는 신호를 작은 호포와 함께 해당 부대의 인기(認旗)를 움직여 신호하였다.¹⁰⁾

이런 지휘관급의 신호가 오고 가면, 바로 이어 군사이동이 진행되는데, 해당 부대의 군사용 악기신호를 이용하여 공격과 퇴각이 진행되었다. 보통은 가족에 해당하는 북과 같은 종류의 악기는 앞으로 나아감을 의미하였으며, 쇠에 해당하는 징이나 팽과리와 같은 금속성 소리는 퇴각을 의미하였다.

『병학통』에 수록된 전술훈련은 정조대에 실전처럼 훈련되었다. 예를 들면, 단순히 진법의 변화나 무예시험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두 개의 부대가 충돌하여 공격과 방어훈련을 진행하여 진법을 구축하고 이를 무너뜨리는 단계까지 발전시킨 것이다.

10) 깃발로 군사신호를 할 때에는 보통 應-응답, 點 -깃발을 지면에 대지 않고 다시 일으켜 세움, 指-깃발을 지면에 대었다가 다시 일으켜 세움, 揮-깃발을 크게 좌우로 휘두름, 報-보고 등으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병학통』을 통한 강화된 전술 훈련은 정조의 화성행행시 어가행렬에도 그대로 반영되었는데, 「반차도」에 기록된 군병배치 역시 이러한 전술훈련을 기본 바탕에 두고 어가를 보호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었다.

Ⅲ. 『병학通』에 입각한 화성행행 「반차도」의 전술적 군병배치

큰 의미에서 반차도의 군사적 의미를 살펴보기에 앞서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할 것이 능행길에 사전에 배치된 당보군(塘報軍)의 형태다. 혹시 모를 적의 기습이나 매복을 사전에 제거하고 유사시 군사신호를 빠르게 보고하기 위해 능행처럼 도성인 궁궐을 벗어날 경우 사전에 군사들을 배치하였는데, 정조대의 화성행차에 대비하여 미리 배치된 당보군의 숫자와 부대거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당은 궐문 밖에, 2당은 鍾閣에, 3당은 南大門에, 4당은 石隅에, 5당은 蔓川에, 6당은 露梁行宮에, 7당은 金佛巖인데 노량 행궁에서 5리이고, 8당은 社堂里인데 금불암에서 5리이고, 9당은 南泰嶺인데 사당리에서 6리이고, 10당은 果川의 작문인데 남태령에서 5리이고, 11당은 泃井인데 과천의 작문에서 4리이고, 12당은 葛山인데 냉정에서 6리이고, 13당은 자잔동自棧洞인데 갈산에서 5리이고, 14당은 沙斤의 終站인데 자잔동에서 5리이고, 15당은 미륵당彌勒堂인데 사근의 종찰에서 5리이고, 16당은 眞木亭인데 미륵당에서 7리이고, 17당은 華城의 작문인데 진목정에서 7리이고, 18당은 上柳川인데 화성의 작문에서 5리이고, 19당은 庫執里인데 상류천에서 5리이고, 20당은 培養洞인데 고집리에서 5리이고, 21당은 재실의 작문인데 배양동에서 5리이다.¹¹⁾

11) 『日省錄』 正祖 18年 1月 12日, 庚子條.

위의 사료는 정조가 수원 화성의 능행차 때 미리 척후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보낸 당보군의 배치와 각 부대 간 거리를 보여 주고 있다. 특히 1당(塘)은 기병3-5명으로 구성되어 약 5리(약 2km)를 기준으로 어영청 주마기사, 훈련도감 별수가마병, 별대마병 등 몇 개의 서로 다른 부대에서 차출하여 배치하였는데, 이는 만약에 한 군영이 반란과 연관이 될 경우 전체적인 지휘보고 체계가 무너지는 사태를 대비하기 위함이었다.

조선시대 반차도에 등장하는 인원의 배치형태는 전기와 후기의 구별 없이 기본적으로는 도가(導駕)¹²⁾ 부분-선상군병(先廂軍兵)¹³⁾ 부분-의장(儀仗) 부분-가전시위(駕前侍衛)¹⁴⁾ 부분-어연(御輦)/어가(御駕)¹⁵⁾ 및 어연시위 부분-가후각차비(駕後各差備)¹⁶⁾ 및 문무백관 부분-후상군병(後廂軍兵)¹⁷⁾ 부분 등으로 크게 7가지 정도의 구역으로 나뉘어 행차 인원이 배치되었다.(노영구 외, 2015)

특히 영조대 이후 국왕이 도성을 떠나 능참배나 휴식을 위하여 교외로 어가행렬이 이어질 경우 영조대에 재정리된 『국조속오례의보서례』의 「성의동가배반지도」을 중심으로 행렬의 배치가 이뤄졌다.¹⁸⁾ 그런데 정조대에는

12) 어가 행렬 맨 앞에서 이동로 바닥을 고르게 하거나, 잡인의 출입을 사전에 막는 부분으로 국왕의 거동 준비 및 실행을 담당하는 官府의 책임자들이 주로 배치된다.

13) 어가 행렬 앞쪽에서 선봉대의 형식으로 시위하는 군병.

14) 어가 바로 앞에서 시위하는 군병으로 이 구역부터는 국왕의 허가하에만 어가 쪽으로 이동이 가능.

15) 사람의 어깨에 의해 이동하면 御輦이 되고, 말이 끄는 경우 御駕가 된다. 보통 城內에서는 御輦방식이고, 城外로 거동시에는 거리가 멀기에 御駕 방식이 된다.

16) 국왕의 행렬을 위하여 어가의 뒤에서 임시로 특별 임무를 임명 받은 差備官.

17) 어가행렬의 맨 뒤에서 후방을 방어하거나, 어가가 공격받을 시 후위의 군병들이 어가 바깥쪽으로 몇 겹으로 방어에 활용했던 군병.

18) 정중앙에 국왕이 탄 가마인 어가가 배치되어 있다. 그림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되는 모습이며, 맨 선두에는 導駕가 배치되고 그 뒤로 先廂馬兵이 오를 중대로 五馬作隊를 형성하는 것으로 호위의 시작을 알리며 호위의 끝은 맨 마지막의 後廂步軍三衛가 배치된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國朝續五禮儀補序例』 「城外動駕排班之圖」.)

이를 또 다시 수정하여 국왕이 교외 거동시 기본적인 의장 및 군사배치를 보다 현실적으로 변경하였다.

다음의 <그림 2> 을 보면, 국왕이 탄 어승마(御乘馬)를 중심으로 앞뒤와 좌우에 의장물과 군병들이 배치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정조대 『춘관통고(春官通考)』에서는 이전 「배반지도」나 「반차도」와는 다르게 국왕의 시위를 군사적으로 강화하기 위하여 어승마의 후미가 마치 진영의 출입구처럼 ‘문(門)’을 따로 표시하여 주장처럼 호위를 강화한 모습이 가장 큰 차이점이다.¹⁹⁾ 또한 유사시 바로 군병을 투입하여 국왕의 어승마를 보호하기 위하여 행렬의 후미병력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기도 하다.

후미병력의 강화 중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별대마병’을 비롯한 후상군병에 말을 탄 기병을 여러 겹 배치하여 유사시 빠르게 공격과 방어가 이뤄지도록 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기병 강화 양상은 숙종대부터 시작되었던 함경도의 친기위, 평안도와 황해도와 별무사를 비롯하여 경상도 동래의 별기위 등 전체 기병 전력의 강화 양상 속에서 그 의미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기병강화 양상은 당시 행행에 참여한 군사들의 배분을 보면, “정리소 장교·군병 84원인명, 장용영 대장 이하 장관·장교·군병 1,867원인명, 훈련도감 대장 이하 장관·장교·군병 1,456원인명, 통호영 병조판서 금근 별장 이하 장교·군병 254명, 어영청 장교·군병 103명, 금위영 장교·군병 21원인명, 수어청 장교·군병 54원인명, 총융청 장교·군병 54원인명”²⁰⁾으로 훈련도감과 장용영의 참여 인원이 가장 두드러지는데, 이 중 두 명의 기병들이 선상(先廂)과 후상(後廂)의 기병대로 가장 많이 투입되었음을 알 수 있다.²¹⁾

19) 이 「반차도」는 좌에서 우로 그림을 읽어야 하며, 맨 오른쪽에 後廂軍兵에서 御乘馬까지가 행렬의 후미이다.

20) 『園幸乙卯整理儀軌』 卷3, 移文 乙卯 2月 30日.

21) 나머지 중앙군 병력은 국왕이 창덕궁을 떠남과 동시에 留都大臣과 留都大將의 지휘아래 창덕궁의 서문인 金虎門 앞에 1차 방어진을 치고, 東營과 南小營을 비롯한 궁궐 주변에 기본 방어력을 증강시킨다. 또한 留都軍 中軍은 정조가 한강 배다리까지 도착할 때까지 先/後廂軍의 병력을 보강하여 혹시 모를 위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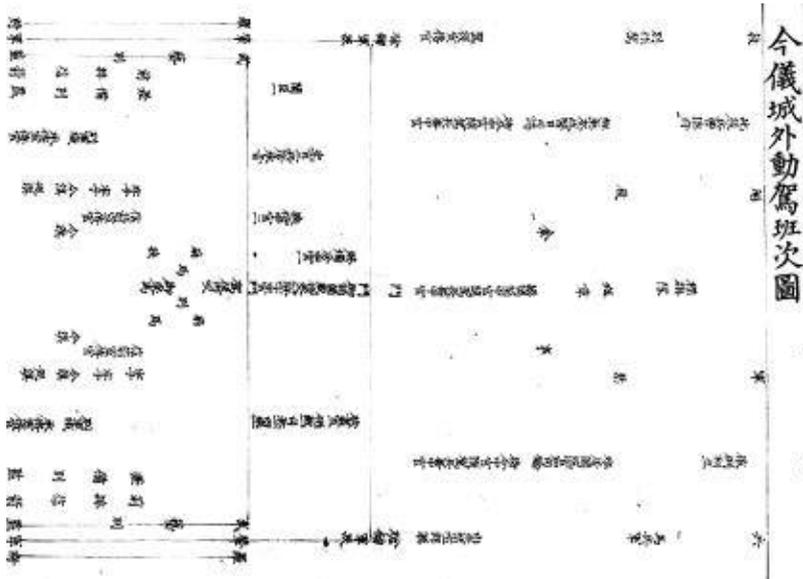


그림 2. 『춘권통고』의 「금의성의동기반차도」 중 어승마와 후상군병 부분

그리고 어승마 주변으로는 신전선전관(信箭宣傳官)이 가장 근거리 배치되는 것도 주목할 만한 차이점이다. 이는 국왕이 군영의 주장처럼 직접 군사 명령의 신호를 직접 전달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하다. 또한 조선후기 군병 중 가장 충성심이 높은 부대인 별군직(別軍職)을 근일시위에 배치했다는 것도 상당한 의미성을 갖는다.²²⁾

이와 같은 어가행렬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원행을묘정리의례』 중 화성행행 반차도를 배치 순서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에 대비하였다. 당시 留營軍의 숫자는 1931명이었다.(『園幸乙卯整理儀軌』 卷3, 狀啓 乙卯 閏 2月 初9日條)

22) 병자호란으로 심양에 볼모로 간 봉림대군(훗날 효종)을 배종한 팔장사군인 박培元·申晉翼·吳孝誠·趙壤·張愛聲·金志雄·朴起星·張士敏 등의 노고를 생각하여 효종 즉위 초에 설치한 국왕의 소수 정예 친위조직인데, 정조대에는 이들의 자손들과 선전관 중 자질이 뛰어난 사람들 따로 선출하였기에 국왕에 대한 충성도가 가장 높은 군 조직으로 볼 수 있다.

첫째, 행렬의 첫 부분은 정리사인 경기감사 서유방이 선두에 서고 바로 이어 전체 행렬을 주관하는 총리대신 체제공과 보좌관격인 녹사(錄事)와 장교까지 도가(導駕)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 도가부분의 맨 선두는 헌병격인 군뢰수와 국왕의 행렬임을 알리는 순시기 및 령기가 좌우로 펼쳐지고 그 안에 도장을 실은 인마, 갑주를 실은 갑마가 배치된다.

둘째, 행렬의 선두에서 호위를 담당하는 선상군병(先廂軍兵) 부분이 지휘 응답에 사용하는 인기(認旗)를 세우고 이끈다. 첫 번째 등장하는 인기는 기병 부대인 별기대이기에 말을 탄 기병이 깃발을 들고 있다. 먼저 84명의 별기대가 오마작대(五馬作隊)라고 하여 오열종대의 형태로 선두를 이끈다.²³⁾

그 뒤 좌우로는 오방색의 신기(神旗)가 배치되는데, 이는 해당 예하 부대의 통제에 활용하는 깃발이다. 바로 이어 두 번째 인기가 나오고 앞 부대를 통제하는 마병별장이 배치된다. 바로 이어 말을 탄 인기 뒤에 마병초관과 좌우초가 오마작대를 이루는 대열이 이어진다.

그리고 붉은 고초기(高招旗)가 서고 보병을 담당하는 인기가 걸어가고 바로 이어 보군초관이 이를 통제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으며, 다음 인기 뒤에는 해당 부대를 통제하는 파총(把總)이 말을 타고 이동한다. 이들을 현장에서 지휘하는 보군초관은 말을 타고 이동하고 그 뒤로는 좌부좌사중초 3대가 종대로 배치된다.

그 뒤로는 주변의 상황을 미리 알리는 당보기(塘報旗)를 시작으로 대열을 선두를 알리는 청도기와 의장용 깃발인 백호기, 황문기, 주작기, 등사기, 현무기, 청룡기, 황문기가 배치되고 뒤에 군사신호용 악기를 다루는 부대를 상징하는 금고기가 맨 후미를 장식한다.²⁴⁾

금고기 뒤로는 나팔을 시작을 팽과리, 피리, 북 등 군사훈련시 전진과 후퇴를 알리는 악기가 배치된다. 이들 뒤에는 훈련대장 이경무를 중심으로 영전

23) 별기대 85명이지만 그림 상에는 오열종대 2줄 그려져 있다. 인원을 전부 그리기에는 한계가 있어 생략한 것이다.

24) 오방기는 보통 대중소 등 3가지로 구분되며, 군사신호에 사용하는 오방기는 아무 그림이 없는 소오방기를 인기와 짝지어 군사신호에 활용한다.

(令箭)과 군뢰(軍牢)가 배치되어 군령을 시작하는 공간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선상군병이 훈련도감의 통제 하에 있음을 의미한다. 이곳부터 중군과 금군별장, 선구금군(先驅禁軍) 25인 오마작대까지의 영역이 선상군병이 담당하는 공간이다.

셋째, 수정장, 양산, 금월부가 국왕의 시위 의장임을 알리는 가전시위(駕前侍位) 부분이다. 국왕 의장물과 함께 그 뒤에는 국왕의 도장을 상징하는 어보마(御寶馬)가 중심에 있고, 행렬의 특별 임시임무를 담당하는 차비선전관(差備宣傳官)을 따라 얼굴을 가린 나인들인 선예나인(先詣內人)²⁵⁾이 좌우 각 9명씩의 말을 탄 여성들이 배치되었다. 국왕을 태운 가마인 어가 앞에는 정리사인 수어사 심이지가 가전별초 50명의 기병으로 어가 앞으로 시위한다. 따라서 ‘가전시위’는 수어청에서 담당했음을 알 수 있다.

넷째, 국왕이 탄 가마인 어연(御輦)/어가시위(御駕侍衛) 부분인데, 국왕의 의물인 홍개²⁶⁾를 앞세우고 백택기, 삼각기, 각단기, 주작기, 벽봉기 등 신기(神旗)가 배치되는데, 이 신기는 각 부대의 지휘 상징물로 국왕이 직접 해당 부대에 명령을 내릴 때, 호포 신호 후 가장 먼저 움직이는 깃발로 각 부대마다 사전에 부대 깃발을 지정받는 방식이었다.

바로 이어 은등자, 금등자, 은립과, 금횡과, 은횡과, 정, 금월부, 작선, 봉선, 용선, 청개가 좌우로 펼쳐지고, 그 사이로 국왕의 가마 중 말이 끄는 어가(御駕)가 배치되었다.²⁷⁾ 그리고 국왕의 어가 바로 뒤로는 국왕의 군사권을 대표하는 독기(纛旗)와 국왕을 상징하는 황색의 용기(龍旗)가 배치되었다.²⁸⁾

25) 이들은 국왕보다 먼저 도착하여 국왕의 수라를 비롯한 수발을 미리 준비하는 역할이다.

26) 紅蓋로 시작하여 의물의 끝은 靑蓋로 마무리된다.

27) 보통 鹵簿儀仗에서 大駕鹵簿는 의장물이 156개, 法駕鹵簿는 105개, 小駕鹵簿는 53개가 활용되었다.

28) 당시 실제로 정조는 이 어가에 타지는 않았으며, 바로 대열의 뒤에 있는 어승마인 坐馬를 통해 이동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국왕의 가마 좌우에 信箭宣傳官과 근밀시위를 담당하는 別軍職을 비롯하여 鳥銃手가 서지 않은 것이다. 그리고 그 인원이 그대로 坐馬쪽에 배치된다.

용기 뒤에는 군사신호용 악기에 해당하는 대각을 시작으로 나팔2, 북, 짐차, 바라, 호접, 해금 등 완벽한 대취타가 가능한 4열 종대의 기마악대가 배치된다(최형국, 2008). 이들 행렬의 바로 뒤를 이어오는 계라선전관(啟螺宣傳官)이 악대를 통제하며 대열 전체의 움직임을 주관한다. 바로 이어 3열의 군사신호용 깃발이 이어지는데, 바깥쪽은 깃발 행렬을 이끄는 청도기를 시작으로 방위기인 서남각기, 군영의 출입문을 상징하는 황문기를 비롯하여 서북각기, 백호기, 현무기, 금고기가 그리고 짝을 지어 아래로는 청도기를 따라 동남각기, 황문각기, 동북각기, 주작기, 청룡기, 금고기가 배치되었다.

또한 중간 열에는 홍·람·황·백·흑의 다섯 가지 색상의 고초기(高招旗)가 배치되는데, 고초기는 주장의 친위 아병을 지휘하거나 유군(遊軍)의 기병을 통제하는데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깃발이었다. 특히 이들 행렬 뒤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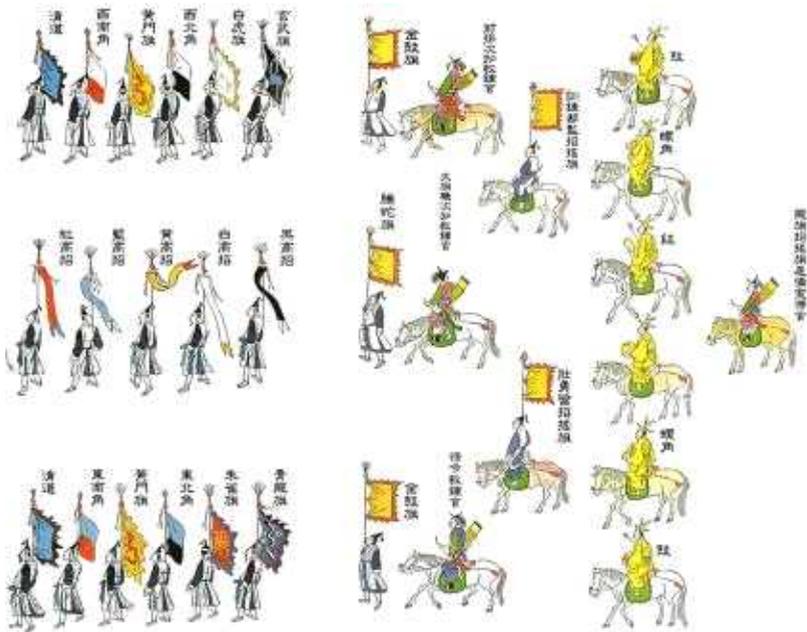


그림 3. 화성행행 「반차도」 중 초요기 부분도

이어지는 황색 바탕에 홍색 화염각을 붙인 초요기 두 개가 깃발의 마지막을 장식하는데, 이 깃발은 정조대 새롭게 국왕행렬에 배치되어 국왕의 군사통제권을 전군에 알리는 가장 확실한 깃발로 인식되었다.²⁹⁾ 특히 그림에는 훈련도감초요기(訓練都監招搖旗)와 장용영초요기(壯勇營招搖旗)가 보이는데, 이를 통해 본 행차의 핵심 시위부대가 훈련도감과 장용영임을 확인할 수 있다.³⁰⁾

위의 <그림 3>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중심의 고초기와 좌우열의 오방기가 짝을 이루고 방위기인 각기(角旗)를 두 개의 초요기를 통해 지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들 전체는 가장 후미에 보이는 용기초요기차비선전관(龍旗招搖旗差備宣傳官)이 국왕의 명령을 바로 받아 수행하는 군사신호방식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초요기와 선전관 사이의 악대는 소라(螺角-나각), 북(鼓-고), 징(鉦-정)으로 가장 기본적으로 모든 지휘관을 불러 모으는 용도와 공격/전진과 방어/후퇴를 담당하는 것만 간단하게 배치하여 나머지 악대를 소리로 이끄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 뒤에는 해경궁 홍씨와 정조의 수라를 실은 수라가자(水刺架子) 수레가 배치되고 이어 정리사인 총융사 서용보가 배치되어 있어 이번 행행(幸行)시 어린 시위는 총융사에 의해 통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섯째, 다른 반차도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독특한 형태인데, 이번 화성행행에서는 국왕인 정조가 일반적인 어연(御輦)이나 어가(御駕)에 타지 않고 좌마(坐馬)를 통해 움직였기에 근밀시위 부대가 새롭게 편성된 부분이다. 위의 <그림 2> 「금의성의동가반차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정조의 근밀시위는 별군직과 승전선전관이 가장 가까이에 서고 그 주변으로 무예별감, 창검군과 협련군, 그리고 맨 마지막 바깥쪽에는 나장이 배치되는 형태이다.

29) 予曰 六軍門招搖旗入之 予曰 招搖旗即禮記所載之旗 此是旗幟中最重者也 志恒曰 自國初所有之旗也 承旨 洪國榮曰 凡於戰陣之中 皆以此旗號令 非此旗則實無指揮三軍之道矣.(『日省錄』 正祖 2年 3月 11日, 辛未條); 招搖旗는 국왕의 군사통솔권을 어가행렬 속에서 보여주는 상징적인 軍旗로 정조대 이전의 반차도나 배반도에는 보이지 않는 깃발이다.

30) 앞서 살펴보았듯이, 훈련도감은 행렬의 선두인 先廂軍兵의 통제를 맡았으며, 壯勇營은 좌마의 바로 후미부터인 後廂軍兵을 담당했다.

이번 행차에서는 어가 뒤로 가후선전관, 승전선전관, 별군직, 별수가장관, 차지교련관이 마대(馬隊)를 형성하고 바로 이어 보병인 협련군 40명과 무예청 충수 40명이 어머니 혜경궁 홍씨의 가마 앞부터 좌우로 각각 세 겹으로 시위 군을 편성하였다. 이어 정조가 탄 어승마인 좌마 부분에는 시위를 가장 두텁게 하여 협마무예청 소속 50명과 협마순위 10명이 각각 좌마의 위아래로 다섯 겹의 인의장막을 치고 정조를 호위하였다.

보통 국왕의 교외 거동에는 길의 협소함의 문제로 보통 바깥쪽으로 3열의 방어막을 치지만, 정조는 이를 더 두텁게 하기 위하여 5열의 환도수, 조총수, 장창과 능장수 등이 배치되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무예청작문’이라 하여 마치 군영의 출입구로 엄히 통제하는 방식을 취했다.

이러한 군병 배치를 『병학통』의 전술과 연관 지어보면, 정조의 어승마가 타격당할시, 앞이나 후미의 기동력이 빠른 기병을 동원하여 전선을 형성하여 적의 진입을 차단함과 동시에 무예청 조총수와 환도수들이 몇 겹의 방어진을 치고 정조를 보호하는 전술전개방식이었다.

이후 선두 기병이 적군의 진입을 저지하지 못할 경우에는 100보를 기점으로 조총병들은 연속사격을 가한다. 만약 적이 50보까지 돌파할 경우 제 2층을 구성한 살수 중 당파수는 화전(火箭)을 발사하고, 장창수는 활을 발사하여 일정한 화망을 구성한다.³¹⁾

그러나 이렇게 조총 및 당파수의 화력을 집중하고도 적의 돌진을 막지 못할 경우에는 신호포와 함께 북을 느리게 치면서 살수들 중 화전을 쏘던 당파수와 활을 쏘던 장창수가 원대로 돌아와 단병접전을 준비하게 된다.³²⁾ 이러한 이유로 보병 중 가장 외벽은 조총수가 배치되고 그 뒤로 당파수 및 장창

31) 賊在百步之內 放砲一聲 吹唃囉各兵起立 再吹馬兵上馬 鳴金唃囉止 放砲一聲 吹天鵝聲 銃手輪放 鳴金喇叭止 防起火一枝 前層鈹弓手出前 吹天鵝聲放射 鳴金喇叭止(『兵學通』 卷1, 「前層銃手輪放」; 「前層銃手輪放圖」)

32) 放砲一聲 點鼓鈹弓手俱回原隊後層間隊而 出待出立隊之前 擂鼓吹天鵝聲 吶喊作戰 鳴金鼓止各兵立 又點鼓緊行 又擂鼓吹天鵝聲吶喊作戰 鳴金鼓止各兵立 又點鼓緊行 又擂鼓吹天鵝聲 吶喊作戰 賊敗鳴金鼓止 擗鈹鳴各整隊伍 再鳴各分原隊 鳴金鼓止(『兵學通』 卷1, 「後層殺手出戰」; 「後層殺手出戰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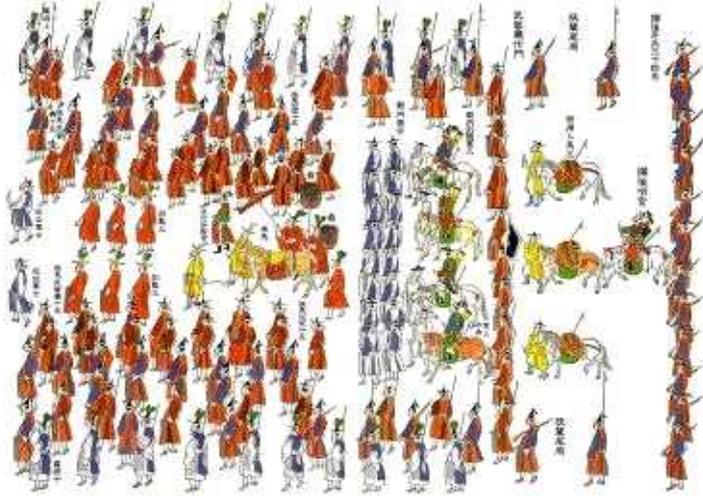


그림 4. 화성행행 「반차도」 중 좌마(어승마) 부분도

수 등 살수가 배치되고 맨 안쪽에는 환도수들이 국왕을 가장 근접에서 방어하게 되는 것이다.

위의 <그림 4>의 정조가 탄 어승마인 좌마 부분을 살펴보면 적의 공격시 국왕을 보호하는 근밀 시위군의 전술 배치를 확인할 수 있다. 위의 <그림 4>에서 중심에는 정조가 탄 어승마의 모습이 보인다. 이를 중심으로 적공격의 방향에 따라 기병이 먼저 적의 진입을 막고 근접시위군인 무예청 소속의 조총수들이 외벽을 만들고,³³⁾ 살수 중 장창수와 환도수가 그 안으로 자벽을 만들어 정조를 보호하기 위하여 최소 4-5겹의 방어막이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여섯째, 가후시위 부분으로 어마의 바로 뒷열에는 난후조관(攔後哨官)과 난후아병(攔後牙兵) 34명이 조총과 환도를 패용하고 3열 횡대로 서서 어승마의 바로 후미를 보호했다. 그리고 이 뒤에는 정리사 부제조 윤행임과 정리사 사

33) 현재 그림 상 보병인 조총수들은 조총을 어깨에 메고 진행 중이다.

복제조 이시수가 이들을 통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바로 이어 정조의 누이인 청연군주와 청선군주의 쌍가마와 혜경궁 홍씨의 친척을 외빈으로 뒤따르게 배치되었다.

이러한 혜경궁 홍씨의 가마, 정조의 어승마, 왕실의 공주인 군주의 쌍가마 다음에는 대규모 기병들이 편성되었다. 이들 기병은 대부분 장용영 선기대 소속으로 지주관, 패장, 선기장용위, 주마선기대가 오마작대의 형태를 기본으로 배치되었다. 이들은 모두 뒷렬의 가후선전관 2원의 통제를 받았으며, 그 뒤로 전체 장용위 소속 96명의 기병이 오마작대로 편성되었다.

바로 이 병력이 어승마가 공격 받았을 시 가장 먼저 신호를 받고 말을 타고 기동 전개하여 적의 진입을 막는 역할을 담당하였다.³⁴⁾ 특히 정조는 행차 시 이동속도의 문제로 기병만을 단독으로 움직여 빠르게 전술기동을 펼치기도 할 정도로 기병중심의 방어전술을 자주 고민하였다.³⁵⁾ 장용영 선기대는 바로 이어 배치된 선기장(善騎將)을 중심으로 인기(認旗)의 색깔에 따라 부대가 나뉘는데, 청색바탕에 붉은색 화염각을 시작으로, 붉은 바탕에 노란화염각, 흰색바탕에 노란화염각으로 구분되는 것으로 보아 모두 3개의 부대로 나뉘어 어승마의 뒤를 시위하였음을 알 수 있다.

IV. 결론

정조는 1789년 양주 배봉산에서 수원 화산(花山)으로 아버지의 무덤을 옮긴 후 해마다 현릉원 참배를 위해 거동하였다. 정조는 재위기간 중 총 66회를 능이나 원을 비롯한 능행길에 올랐다. 날짜로 보면 모두 123일을 쉼 밖에

34) 『兵學通』 卷1, 「列陣」을 보면, 가장 먼저 적의 움직임에 대응하는 부대가 主將 최근거리의 기병임을 알 수 있다.

35) 丑時具軍服乘馬出果川行宮 命壯勇衛挾輦 訓將都領攔後馬兵 禁軍五十人及善騎隊二哨爲先廂 禁將率領本陣馬兵爲後廂 其餘禁營鄉步軍二哨 壯營京步軍二哨 鄉步軍一哨 使之追到華城(『日省錄』 正祖 18年 1月 13日, 辛丑條)

서 지냈다.

따라서 방어하기 쉬운 궁궐이 아닌 도성 밖의 행행은 그 자체로 많은 위험성을 안고 있기도 하였다. 그래서 을묘년 원행길에 정조의 복장은 국왕의 용복을 입고 어승마에 직접 올라 마치 군사행렬의 모습을 연상하게 만들었다.

일반적으로 능행차시 국왕의 복장은 익선관에 곤룡포를 입는 것이 법도였지만, 정조는 군행(軍行)으로서의 의미를 더 부각시킨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원행을묘정리의궤』에 실린 행사의 전반을 그림으로 남긴 「반차도」에는 국왕의 행렬이 군사신호에 사용하는 다양한 깃발과 신호체계용 악기를 비롯하여 많은 군사관련 모습들이 그대로 담겨 있다. 정조는 단순한 국왕을 넘어, 여러 군영을 이끄는 주장으로서 화성행행을 진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논문을 통해 정리된 부분을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조는 즉위 초반 『병학통』의 편찬을 통해 여러 군영들의 군사 진법훈련을 통일화시키기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1790년 4월에는 『무예도보통지』의 간행을 통해 군사들이 익히는 개인 단병무예까지 세밀하게 통일화시키는 작업을 주도적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실제적인 모습이 『병학통』에 담겨 있다는 것이다.

둘째, 『병학통』에 수록된 전술훈련은 정조대에 실전처럼 훈련되었으며, 단순히 진법의 변화나 무예시험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두 개의 부대가 충돌하여 공격과 방어훈련을 진행하여 진법을 구축하고 이를 무너뜨리는 단계까지 발전시킨 것이다.

셋째, 을묘년 화성행행 「반차도」에는 앞서 살펴본 『병학통』의 전술전개를 위한 군병의 배치가 실제로 이뤄졌고, 선상군병부터 후상군병에 이르기까지 정조가 이를 직접 통제하기 위한 다양한 군사 명령의 체계를 행렬 상에 구현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넷째, 이번 화성행행에서는 국왕인 정조가 일반적인 어연이나 어가에 타지 않고 좌마를 통해 움직였기에 근밀시위 부대가 새롭게 편성된 부분이다. 보통 국왕의 교외 거동에는 길의 협소함의 문제로 보통 바깥쪽으로 3열의 방어막을 치지만, 정조는 이를 더 두텁게 하기 위하여 5열의 환도수, 초총수, 장

창과 능장수 등/이 배치되었다.

다섯째, 『병학통』에 수록된 전술 중 행군시 갑자기 적의 공격을 받았을 때 펼치는 전술기동전개를 정조의 어승마를 중심으로 구현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동성이 뛰어난 마병 즉 기병들이 적군의 전진을 막아서고, 이후 보군들이 주장 즉, 정조가 탄 어승마의 안쪽부터 순서대로 군사들이 기동 전개하는 방식이었음을 알 수 있다.

18세기 국왕의 교외거동은 그 자체로 일반 백성들에게는 큰 관광의 요소였다. 또한 그 행렬의 과정에서 백성들이 억울한 사정을 국왕에게 직접 호소하는 격쟁(擊箏)과 같은 일들은 단순한 관광을 넘어 백성들과 직접 소통하고자 하는 새로운 시도이기도 했다.

그러나 행행과 관련된 국왕의 그 모든 일은 반드시 안전을 담보해야만 가능했다. 이런 이유로 정조의 을묘년 반차도상의 국왕의 행렬은 단순한 의장 행렬을 넘어 군사 전술적인 의미가 충분히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를 통하여 전통시대 국왕의 호위전술이나 국왕주변 왕실 시위군의 무예를 연구함에 있어 기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國朝續五禮儀補序例』
- 『兵學通』
- 『研經齋全集外集』
- 『園幸乙卯整理儀軌』
- 『日省錄』
- 『正祖實錄』
- 『周易』
- 『春官通考』

- 김산, 김주화(2008). 韓·中·日 長兵武藝 長槍 研究 - 《武藝圖譜通志》·《手臂錄》·《民俗畫譜》를 중심으로. 한국체육학회지 47, 39-49.
- 김문식(2015). 을묘년 정조의 수원행차와 그 의미. 수원화성박물관.
- 김지영(2005). 朝鮮後期 國王 行次에 대한 연구- 儀軌班次圖와 舉動記錄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노영구 외(2015). 조선후기 의궤 반차도에 나타난 군병 배치 및 군사용 깃발의 표현양식. 역사와 실학 56, 109-120.
- 노영구(2016). 조선후기의 전술- 『兵學通』을 중심으로. 그물.
- 민길홍(2015). 1795년 정조의 화성행차와 <화성원행도병>제작 양상. 수원화성박물관.
- 백영자(1994). 조선시대의 어가행렬.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 옥영정(2015). <원행을묘정리의궤>의 서지학적 의미. 수원화성박물관.
- 장필기(2003). 조선후기 武班家系의 구성과 闕闕化. 조선시대의 과거와 벼슬 1, 집문당.
- 제송희(2015). 정조시대 반차도와 화성 원행. 수원화성박물관.
- 최형국(2008). 조선후기 군사 신호체계 연구-〈兵學指南演義〉를 중심으로. 학예지 15, 육군박물관.
- 최형국(2012). 正祖의 文武兼全論과 兵書 간행-認識과 意味를 中心으로. 역사민속학 39, 101-110.
- 최형국(2015). 정조의 무예사상과 장용영. 경인문화사.
- 최형국(2017). 육군박물관 소장 <무예도보통지> 편찬의 특징과 활용. 학예지 24, 육군박물관.
- 최형국(2018). 병서, 조선을 말하다. 인물과 사상사.
- 한영우(2013). <반차도>를 따라가는 정조의 화성행차. 효형출판.
- 허인옥(2019). 조선 후기 갑춤[劍舞] 그림과 『武藝圖譜通志』 『雙劍』 동작의 비교. 무예연구 13(4), 2-20.

ABSTRACT

A Study on the tactics of 『Byeonghagdong(兵學通)』 and 「Banchado(班次圖)」 illustrations of Hwasunghanghang(華城幸行) Martialarts Escort group deployment relationship

Choi, Hyeong-Guk(Director, Insitute of Korean Traditional Martial Arts)

This study is based on the 『Byeonghagdong(兵學通)』 tactics of Military tactical book, which was compiled in the King Jeongjo era. Using the weapons of the actual paramilitary procession of this 「Banchado(班次圖)」 illustrations, analysis was conducted from a military historical point of view, such as tactical development of combat and tactical signal development using flags and musical instruments. When the real king's procession faces a military threat until the arrival from Palace Changdeoggung(昌德宮) to Suwon Hwaseong(華城), it is most effective to protect the king and move the procession steadily to the next shelter. Therefore, the procession of 「Banchado」 was more than a ritual procession, and the actual protection military tactical arrangement of the King was carried out. In particular, King Jeongjo arranged five layer of Royal guard, a sword soldier, a spear soldier and gun soldier to make his escort thicker. This was designated as Muyecheongjagmun(武藝廳作門) and was strictly controlled at the entrance and exit of the unit. In addition, King Jeongjo confirmed that the close-guard area formed by the Royal guard that quickly responded to a surprise attack through the cavalry unit of Seongidae(善騎隊). This is a tactical deployment that protects the most important generals during the 『Byeonghagdong』 march when attacked by an enemy, and this is reflected in the 「Banchado(班次圖)」. In conclusion, it can be seen that King Jeongjo's procession of the 「Banchado(班次圖)」 is more than a simple chairperson

procession, and reflects the military tactical meaning.

Key word : King Jeongjo, Hwaseong(華城), 「Banchado(班次圖)」, Royal guard, 『Byeonghagtong(兵學通)』

논문투고일 : 2020.12.31.
심사일 : 2021.01.10.
심사완료일 : 2021.01.28.